

전남, 공공조달 첫 관문 '혁신구매' 높다

전남 구매액 전체의 5.7% 차지 ... 광주는 1.6% 비중 벤처나라·우수조달물품 구매 실적은 미미한 수준

경험이 부족한 지역기업들의 공공조달 첫 관문인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구매액 부문에서 광주·전남이 우수한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구매액은 서울·인천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았고, 광주는 9번째였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주요 조달장치가 지난 5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주재한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조달업체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 기준 혁신시제품 구매액(매칭금액)은 광주 1억100만원·전남 3억4900만원 등 전국 61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남 구매액은 전체의 5.7%를 차지했고 광주는 1.6% 비중을 나타냈다. 전체 구매액 비중은 지자체는 46.7%(28억6660만원), 국가공공기관 53.3%(32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범에 이어 올해 정규 시행되는 '혁신시제품 구매사업'은 공공기관과 최대 5억원 규모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창업기업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상용화된 혁신제품의 초기 구매자가 되는 조달 방식이다. 혁신시제품 구매 성과는 지자체 합동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며, 개정된 조달사업법에 따라 구매 담당 공무원의 회계 책임이 면제된다.

혁신 시제품은 1호로 선정된 광주 ㈜티디엘과 함께 광주 3개·전남 4개 등 총 81개가 지정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혁신 시제품에 선정된 9개 기업의 9개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구매에 참여한 기관은 광주시, 전남도, 광주도시공사, 광주교육청, 광주경찰청,

강진군, 완도군,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등 9곳이다.

광주시는 ㈜티디엘 'LED 투명 전광판'을, 전남도는 무안 ㈜전통무인항공의 '드론 활용 방역 장치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정 청장은 "광주·전남지역의 혁신 시제품 구매 실적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앞서가는 편"이라며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돼 실험실에 머물러 있던 혁신기술이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는 점에서 공공혁신조달이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성과와 달리 벤처나라와 기술개발 우수제품(우수조달물품) 구매 실적은 광주·전남이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우수조달물품 구매액은 17개 시도 중 전남 5위(7억9200만원), 광주 16위(1억800만원)로 비교적 낮았다. 창업 7년 이하 기업이 공공기관에 조달할 수 있는 '벤처나라' 구매액도 전남

5위(1700만원), 광주 11위(800만원)를 기록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공격구매가 부진한 데는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완성품 제조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기정 한국전력 자재처장은 "지난해 한전의 광주·전남지역 구매액은 전체의 4~5% 수준인 1400억원 정도였는데 혁신 시제품 비중은 1%, 즉 140억원을 채우고 싶어도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며 "혁신시제품 구매 선택권을 확대하고 감사문제와 구매 담당자 면책 등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대표 참석자들은 "혁신시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지자체 문의가 잇따랐으나 관련 예산이 부족해 사양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제품 제작, 적정 테스트 비용을 늘려주고 건당 100만원이 넘는 전문기관 납품검사 수수료를 낮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59번째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남구 행암동 '꿈사랑그룹홈' 선정



고병일(오른쪽) 부행장이 지난 5일 남구 행암동 '꿈사랑그룹홈'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선정 기념물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남구 행암동 '꿈사랑그룹홈'을 59번째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동 5명이 생활하는 '꿈사랑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지역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이다.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지난 5일 꿈사랑그룹홈을 방문해 옷장, 책장, 의자 등을 교체하고 아동들과 간식을 나

눠먹었다.

고병일 부행장은 "지역 아동들이 새롭게 꾸며진 공부방에서 건강하게 꿈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그룹사들, 이달 안에 한전공대 설립금 600억 출연

총장 최종후보사 주증 발표

한국전력을 포함한 한전 그룹사 11개사가 이달까지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한전공대) 출연금 6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7일 한전공대설립단에 따르면 한전 그룹사 11개사는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전공대 설립에 관한 기본협약'에 따라 법인 설립 및 초기 운영, 캠퍼스 설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초(1차) 자금 600억원을 6월까지 출연하기로 했다.

한전공대 측은 법인 등기할 날부터 3개월(7월19일) 안에 교육부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출연재산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보고해야 한다.

1차 출연금 600억원은 한전 384억원(64%)을 포함한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6사 각 30억원(각 5%), 한전KPS-한전 KDN 각 12억원(2%), 한전기술-한전원자력연료 각 6억원(1%) 등으로 마련된다.

한전KPS와 원자력연료는 현재 출연을 마친 상태이며 나머지 8개 그룹사는 이사회를 열어 출연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한전 측은 편제가 완성되는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는 9959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룹사 출연 예상액 4799억원을 포함해 지자체·정부 지원 각 2470억원, 대학자체수입 220억원 등이다.

11개 그룹사는 1차 600억원을 시작

료 2021년 2916억원, 2022년 1283억원 등 4799억원 상당 출연금을 분담할 계획이다.

1차 출연금 600억원은 수익용 기본재산 300억원과 직원보수 14억원, 설계비

194억원, 정보시스템 구축 43억원, 관리운영비 2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한전공대이사회는 지난 5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2차 이사회를 열고 총장 최종후보자를 3명에서 1명으로 압축했

다. 임기 4년에 연임도 할 수 있는 한전공대 초대 총장은 2022년 개교 전까지 대학설립추진위원장을 맡는다. 한전 측은 이달 안에 총장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선글라스 80% 할인 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고객이 지하 1층 '베디베로' 특설매장에서 선글라스를 고르고 있다. 중소파티너사 '상생나눔' 행사의 하나로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할인전에서는 인기 상품과 재고물량을 최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83개사 선정 27억원 지원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호남지역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에 참여할 83개 기업을 선정하고 27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거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14개 세부 프로그램을 바우처 방식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바우처는 정부가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하고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컨설팅, 기술, 마케팅 분야 세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인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받는 방식이다.

광주 28개사 10억원, 전남 48개사 15억원, 제주는 7개사 2억원이 지원되며, 2차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조 광주전남중기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 제조 중소기업이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잘 활용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로또복권 (제1914회)

| 당첨번호 | | | | | | 2등 보너스숫자 |
|------|------------------|---------------|----|----|----|-------------|
| 16 | 19 | 24 | 33 | 42 | 44 | 27 |
| 등위 | | 당첨금(원) | | | | 당첨자수 |
| 1 | 6개 숫자일치 | 1,950,005,557 | | | | 11 |
| 2 |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 65,000,186 | | | | 55 |
| 3 | 5개 숫자일치 | 1,382,983 | | | | 2,585 |
| 4 | 4개 숫자일치 | 50,000 | | | | 122,904 |
| 5 | 3개 숫자일치 | 5,000 | | | | 2,006,794 |

이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6월호

5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코로나19 시대 '뉴노멀 라이프'

코로나가 바꾼 일상, 슬기로운 집콕 생활 '코로나 블루' 치유해주는 전남의 행복숲 '코로나19 탈출법' '그린 힐링 BOOK' 세계도시들의 프로젝트 '랜선여행', 대세가 되다

화제의 문화현장-무주 공공건축 프로젝트

주민의 삶에 스며든 건축, 공공건축의 미래를 보다

클릭, 문화현장-고흥 남포미술관 개관 15주년, 전국 브랜드로 성장

도시디자인, 행복한 도시 풍경의 완성-단순한 디자인의 모던 감성 덴마크 코펜하겐

예향이 만난 이 사람 할머니들의 이야기, 다큐 '정하게 이베네' 연출자 정경희 KBO리그 움직이는 광주·전남 출신 야구선수들

예향 초대석

자연요리 연구가 '방랑식객' 임지호

"요리의 첫마음은 자연에 대한 감사조"

문학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깊은 뿌리 지닌 온고을 문학 전주 전북문화관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기-갯마을로 배우는 반려견 건강 자연식

문화계 핫 이슈 "5060 생각 회로 바꿔 디지털에 접속을"

전시 리뷰 <불혹: 더 나은 날을 위하여>전

유연준의 도시건축-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도시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나이는 숫자" 중장년, 대중문화 새 패러다임

힐링 투어 '건강의 섬' 신안으로 떠나는 초여름 날들이

씨름씨름 남도 한 바퀴-광양 남도여행 매력 일머리, 가치 푸른 더덕

정자, 차밭, 다산의 자취-전통의 범영수주-생막걸리